

67
창간 70주년
1945-2012

2012년 강원경제인페스티벌 건설인상 (주)동서 수상을 축하합니다



제6회 강원경제인페스티벌 건설인상을 수상한
(주)동서 김래선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CAK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정동기 외 회원사 임동



올림픽 연계교통망 사업에 9,400억 투입

국토부 2013년 예산안 편성 8개 도로 2개 철도 사업 진행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사업에 총 9,400억여원이 투입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올해 22조4,144억원에서 4.2% 늘어난 23조3,539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교통망 확충사업에는 올해 5,426억원에

서 3,998억원(73.7%) 증가한 9,424억원이 편성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국도 6호선 둔내~무이(100억원), 무이~장평(100억원), 장평~간평(100억원)에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선형 불량구간의 평창~정선1간 국도 확충사업에도 191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91억원이 늘었다. 또 716억원을 들여 쌍용~제천 간 복선전철도 내년 중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에는 국도 3개 사업이 신규

추진되는 등 총 8개 도로 및 2개 철도 사업이 진행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5년여 앞으로 다가오며 도내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민주거복지·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사업도 이뤄진다. 재정비축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올해 24개 지구, 850억원에서 내년에는 27개 지구 1,000억원으로 늘리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788억원으로 증액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50억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 250대를 도입하고 420억원을 투입해 939대의 저상버스로 들어온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확대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국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SOC사업 조기완공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후반기 의장에

김인배 협의회장 당선

김인배(삼척시의장·새누리당·사진)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27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6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지방재정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66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열린 협의회장 선출 투표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8표를 득표해 7표를 얻는 데 그친 박흥모(새누리당) 의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앞서 열린 1차 투표에서 김 의장이 5표, 서울 박흥모 의장이 6표, 대구 조재구(새누리당) 의장이 4표를 얻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가졌다.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와 의원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강원도 3대 현안을 비롯해 지역현안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삼척시 도계읍 출신으로 강원대 삼척캠퍼스 토목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주)구룡건설을 설립해 한국JC 대외정책실 통일정책 담당이사,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 법무부 정책자문단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삼척=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 **새의자** •

박 동 헌 대한지적공사 도본부장

박동헌(58) 전 강원도 토지지원과장이 오는 10월 4일 대한지적공사 도본부 제22대 본부장으로 취임한다.

신임 박 본부장은 “어려운 지역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지적관련 업무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도내 지적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도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 강원



대를 졸업했으며 강원대 지리정보학과 석사과정에 재

학중이다. 도의회 관광건설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도 토지지원과장, 대한지적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가족은 부인 이명자씨와 1남1녀.

박현철 lawtopia@kado.net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의장 선출

김인배(48·새누리당) 삼척시의회의장이 제6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 인터뷰 23면

김 의장은 27일 서울지방재정 공

제회관에서 열린 후반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날 김 의장은 서울 송파의 박흥모 협의회장, 대구 남구의 조재구 협의회장과 2차까지 가는 투표 끝에 8표를 획득, 서울의 박 후보(7표)를 누르고 협의회장에 당선됐다.

김 협의회장은 지난 7월 채선의 원으로 삼척시의회의장에 이어 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장에 선출됐다.

김 회장은 삼척 도계출신으로 강원대 삼척캠퍼스 토목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 협의회장은 “전국 15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균형있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전국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건설 전 춘천시의회의장에 이어 두번째다.

삼척/홍성배 sbhong@kado.net

“지역 양극화 해소 혼신”

김인배 도시군의회의 협의회장

“지방은 없고 중앙만 있는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서울 지방재정 공제회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66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제6대 후반기 협의회장에 선출된 김인배(48·삼

척시의회의장·새누리당) 도시군의회의 협의회장은 “시군구의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주요 현안을 2년의 임기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협의회장은 특히 “시군구 의원들이 중선거구제로 인해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만큼 소선거구제로 전환해 의원 개개인들이 지역 발



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분권화가 되지 않아 중앙의 쏠림현상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새가 양쪽 날개로 날아가야

하는데 현재는 한쪽 날개짓만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를 개선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6년에 생긴 정당 공천제로 인해 시·군·구의원들은 줄서기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군·구의원들에게 정당정치는 무의미 하며 시민들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척/홍성배 sbhong@kado.net